

제171차 안산시의회(임시회)

시정질문 서면질문 · 답변서

안 산 시 의 회

제171회 안산시의회(임시회)

시 정 질 문

김 기 완 의원

1. 국제레저 항공전이 우리 안산에서 5월 개최 되는데

- 현 90블럭 개발과 관련하여 장소의 부적절성 등
-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?

2. 도비 보조내시 비율의 조정으로 지자체 부담이 증가되어 시의 재정부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?

□ 다음은 김기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제 레저항공전 개최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< 질문 요지 >

○ 5월에 개최되는 국제레저항공전이 사동90블럭 개발과 관련하여 장소의 부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?

○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항공산업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인 블루오션 시장으로,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높은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써,

○ 「2010경기국제항공전」을 통해 항공산업의 발전제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첨단산업 영역을 개척하고자 경기도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
○ 금번 행사는 항공산업 인식 제고를 위해 레저항공산업전을 주요 컨셉으로 하되, 교육/캠프운영, 레저항공 체험마당 등을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비행원리와 항공과학 이해를 촉진하고,

항공기 구조·재료·운영체제 등 항공 기초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제기를 마련코자 합니다.

- 지난해 5월에 개최된 2009국제레저항공전은 102대의 레저 항공기와 33개 항공업체가 참여하여 에어쇼 및 각종 항공 시범비행 등 볼거리 제공과

27종의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6만 2,520명이 직접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3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토양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.

- 또한 「2009국제레저항공전」은 국내 최대 규모의 레저항공전으로 단순 행사 차원을 넘어 레저항공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,

언론보도에 따르면 30만명의 관람객 유치를 통한 60억여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산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
- 당초 많은 우려 속에 추진되었던 2009국제레저항공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된 것은 사동 90블럭 행사장의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.

- 사동 90블럭은 관람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인 장점과 당초 조성되어 있던 활주로 등 기반시설의 활용도가 높아 30여만명의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,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.

- 본 행사지에서의 경기국제항공전은 사동복합개발사업의 착공시기 등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금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, 2011년 항공전 개최를 위한 최적의 대체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.
-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“항공산업 발전계획 중장기 마스터플랜” 수립용역을 발주하였는바, 대송단지에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동 부지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 등 장기적인 대안 마련도 적극추진 중에 있습니다.
- 아무쪼록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통하여 서해안의 항공산업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, 기업의 참여를 확산시켜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

□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비보조 비율 조정으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< 질문 요지 >

○ 도비보조 비율의 조정으로 지자체 부담이 증가되어 시의 재정부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대안은?

○ 우리시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 도비보조사업은 187건에 361억원으로 도비가 45.02%인 163억원, 시비부담비가 54.98%인 198억원이며

2010년도 당초예산 도비보조사업은 179건에 356억원으로 도비가 42.84%인 152억원, 시비부담비가 57.16%인 203억원으로 전년대비 도비보조금은 8건에 11억원이 감소하였으며, 시비부담율은 2.18% 증가하였습니다.

○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보건·여성분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

8개분야 28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시·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따라 우리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2009년도에는 10%인하보조 대상이었으나, 교부단체로 전환된 2010년도에는 정상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.
- 도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2010년 취·등록세 수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세입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,840억원이 감소하는 등 매년 도 재정이 어려운 실정으로
- 도비 매칭사업을 보건사회분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5개분야 27개사업에 대하여는 5:5에서 3:7로 도비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인하하였습니다.
- 우리시에서는 국회의원, 도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사전설명 등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도 시책추진 보전금 및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이상으로 이민근, 김기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